

Dr. Jeffrey Niehaus, 성경 신학, 세션 4, 노아의 언약

© 2024 Jeffrey Niehau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노아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아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논란의 여지 없이 아담 언약의 갱신입니다.

아담 언약이 있었다는 생각은 오래된 생각이며, 창세기 9장에서 읽은
내용을 근거로 볼 때 그럴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베리트라고 합니다 . 창세기 9장
16절에 나오는 올람은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효력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동사로
말했듯이, 주다, 서게 하다, 효력을 발생시키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28을 반복하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지적인
대로요.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확히 평행하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노아 언약에서 말하고 있다면,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 언약적 맥락, 즉 아담 언약에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 세 번째 부분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다른
것을 얻을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두려움과 당신에 대한
공포가 모든 짐승 위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타락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물을 다스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도전받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동물이 사람을 먹을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후에는 무법 상태 또는 무법의 원리가 세상에 도입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이 세상의 신인 악마와 그의 천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상황입니다. 문화적 사명에 대한 인간의 성취는 도전받지 않고 계속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담조차도 땅이 낸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여기서 동물에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규칙을 용이하게 하셔서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인간을 피하고 인간이 풍경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남쪽의 소나무 숲을 건다가 방울뱀을 놀라게 하면, 겁이 나서 물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백상어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수립하는 동사의 관점에서 갱신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말하고 싶지만, 어떤 이전 관계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약의 형태 비판이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보면, 아담 언약에서 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은 형태 비판이 나쁘지 않고, 더러운 단어나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19세기 후반의 독일 학자 헤르만 군켈은 양식 비평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창세기에 대한 비평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 것을 했을 때,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가부장적 서사의 문학적 형태를 사가와 전설로 특징지었습니다. 즉,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유럽의 중세 시대 문학적 범주를 가져와서 창세기 서사에 암시하거나, 각인하거나,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장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비판 형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가부장적 서사는 논란의 여지 없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서사입니다.

그것은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들려지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주장이지만, 요점은 양식 비평이 단순히 그 구절의 장르의 문학적 형식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한 일이며, 우리는 그것이 언약 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언약이라고 부르는 데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창세기 9장에서 그것은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형식적 비판을 한다면, 그것이 모자이크 낱자의 언약에서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이것은 실제로 신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데이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본성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는 신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타이틀을 알려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 살과 그 생명을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피입니다.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작은 구절에 포함을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Inclusio는 라틴어로 포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작은 패키지로 포장하는 것이죠. 그가 반복하는 이유는 그가 모든 사람을 쓸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계속해서 번성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류가 계속 살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는 그들을 축복한다. 글쎄, 우리는 처음에 그걸 들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생물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식물과 동물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축복입니다. 그는 두 번째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연히, 타락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가 정원에서 어떤 과일이든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식물과 동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채식주의자로 시작해서, 신이 그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입니다. 저주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당신은 사람과 짐승에게 사람의 피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즉 인간 존재의 피를 아담에 의해 흘린 사람은 누구나 그의 피가 흘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당신은 인간을 죽이는 것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카인이 동생을 죽였지만, 그는 그 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인간의 언약이 잇따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본성과 요구 사항을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지금 당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인간을 죽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만약 누군가가 어떤 주, 어떤 주, 어떤 나라에서든 공통 은혜 아래 사형에 대한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전 세계에 적용되는 공통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그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일한 형벌이 모세 언약에서도 반복되는데, 이는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형과 맹세, 나는 너와 네 씨와 무지개와 그 의미에 대한 설명과 언약을 세운다. 글썄, 우리가 지적했듯이, 축복의 풍성함은 2천년의 날짜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에 사용된 조약 양식이었고 모세 시대에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며, 활은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영원하다는 용어에 대한 한 가지,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적 신-인간 언약은 언약으로 식별되므로, 언약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리고 유일하게 제외된 것은 아담 언약입니다. 그것은 언약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언약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영원하다고 불리지만, 나는 그들 모두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더 이상 언약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할례, 즉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 표징은 폐지되었으므로, 언약의 표징을 가질 수 없다면 언약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언약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에 반대할 때, 그가 반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우연히, 그것은 약간 곁길로 가긴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율법 전체를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만약 할례가 율법의 표징이라면, 그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당신은 할례를 받았어요. 당신은 율법을 따라야 해요. 하지만 할례는 모세 언약의 표징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1장의 안식일은 모세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지만 모세 언약은 할례를 요구했고, 할례를 요구한 이유는 모세 언약에 참여했다면 아브라함 언약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새 언약이 체결될 때까지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을 따르려면 전부 따라야 합니다. 그냥 따를 수도 없고, 골라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언약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언약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모세 언약은 콜로새서 2장에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취소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이 법적 법안입니다.

그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항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다윗의 언약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그리스도는 이제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왕은 없을 것이고,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곧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노아의 언약은 어떨까요? 노아의 언약은 베리트라고 불립니다. 올람, 영원한 언약. 글쎄요, 예를 들어 인간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주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그와 같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살인은 없을 것입니다. 살인에 대한 처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언약, 아담의 갱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함께
현재 지구를 통치합니다.

우리가 새 땅을 얻을 때, 그 언약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베리트 라고 불리지만, 올람 ,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의 근원은 제가 여기서 게임보다 약 반 페이지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용어인 올람은 숨겨진다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관련하여 그 의미는 너무 먼
과거이거나 너무 먼 미래여서 시야에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오랜 시간이나
미래의 오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3:11, 이사야, 주님은 올람 의
날들 , 모세의 날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모세의 시대는 이사야와 무한히 멀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과거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야에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서 13장에서 읽은 영원한 언약인 유일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피, 즉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지개의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볼 때,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고 비슷한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지구에 인간을 만든
것을 유감스럽게 여겼다는 생각처럼, 기억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깁니다. 하나님이 잊고 이런 상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의가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우연히 이 무지개를 발견하고 아무리 나쁜 말을 하더라도, 오, 맞아요, 기억해요, 제가 그들을 없애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없애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그가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관련된 구름도 홍수의 구름이 신현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홍수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감독하고 계셨습니다.

마블 , 즉 홍수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 이 용어는 이전에 노아의 홍수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주님이 신현적으로 존재하셨고 , 홍수에 임하셨으며, 폭풍 구름에 임하셨고, 홍수를 가져오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홍수가 끝났을 때,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한 연구에 따르면, 그 비유는 아시리아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 황제 빅토리우스가 전투 후에 활을 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하늘에는 최고신 아시리아가 활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끝났고 전쟁 수행을 중단한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상징은 주님이 인간과의 전쟁을 끝내셨기 때문에 활을 걸고, 그것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이 있다면, 그 반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래 무지개의 끝은 무지개였고,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서 나중에 나타난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가지 요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그는 대부분의 인류와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것은 홍수의 형태를 취합니다. 글쎄요,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4:5에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 깨졌다고 읽습니다.

땅은 그 주민들 아래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시입니다. 그것은 온 지구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언약이며, 온 지구를 다스리는 언약은 창세기 9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 그와 지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법을 어기고 법령을 어겼습니다. 글썄요, 그게 다 뭐였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법령과 요구 사항을 부여하셨음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창세기 26:5에서 그가 이삭에게 한 말과 같이, 아브라함이 내 모든 법과 규례와 요구와 법령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간결한 보도의 또 다른 힌트: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노아를 통해 왔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류가 이것들을 어기는 것은 너무 심해져서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또한 혼돈의 도시가 무너졌다는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용어는 토후 , 도시 또는 토후 마을 , 혼돈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혼돈을 나쁜 용어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형태가 없고 (tohu) 공허하고 (vavohu) 공허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죄의 본질에 대한 무언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이 공허하고 (tohu) 공허

하다고 말했을 때, 바보후 (vavohu) , 형태가 없고 공허하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아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부르신 물질은 비교적 형태가 없었고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을 우주로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이라는 용어를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가 혼돈에서 우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질서, 장식, 아름다움입니다. 좋아요, 글썄요, 좋습니다.

이 종말론적 비전의 시기에 일어난 일은 무형의 도시, 혼돈의 도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일종의 상징적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civitate Dei, 신의 도시와 인간의 도시 에서 쓴 것과 매우 비슷하다 . 인간의 도시는 역사 전반에 걸쳐 성장해 온 인간의 기업이며, 점점 더 신에 반항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두 도시의 이야기, 두 도시 사이의 갈등이다.

그리고 인간의 도시는 스스로를 신에 대항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에 대항하는 인간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법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법입니다.

그것은 신의 법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혼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은 죽이고 흠치고 파괴하기 위해 온다. 그는 혼란을 가져온다. 그는 무질서를 가져온다.

그는 우주를 혼돈으로 축소합니다. 그래서 마치 벽돌더미가 있고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글썄요, 벽돌더미는 토후 입니다 .

아시죠, 그건 그냥 형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집을 짓고 거기서 우주를 끌어낼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벽돌로 지은 집이 있는데 폭격을 당하면 벽돌 더미가 생깁니다. 글쎄요, 그것도 벽돌 더미일 수 있지만 좋지 않습니다. 혼란이죠.

그것은 파괴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아니면 그래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영이 우리를 도우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화해하기 전까지는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는 일입니다. 방해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고 계신 질서, 우주, 건전함, 그리고 정신 건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커질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말론적으로 상상되는 상황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계시록 11장과 18장에서 사람들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이 불타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것의 종말론적 성격, 그것의 세계적 성격, 이미 지적된 세계적 성격뿐만 아니라 그것의 우주적 성격도 지적됩니다. 그는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와 땅에서 땅의 왕을 벌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난 후, 주님은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달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읽습니다. 수치의 태양, 만군의 야훼가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히브리어 단어는 kavod 입니다 .

영광을 뜻합니다. 부사적으로는 영광스럽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주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고 죄를 완전히 없애신 후에야 그분은 장로들 앞에 서서 온전한 사람, 곧 그분의 백성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있는 그대로 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듯이, 타락 후에는 그렇지 않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묵시록인데, 한 장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글썄요, 우리는 사형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을 조금 탐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서 적용될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성경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 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사형제를 두어야 할까요? 글썄요,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사형제는 imago Dei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됩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인간, 누구든, 일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것이 인간이 창세기 1:26에서 읽은 것과 같은 신성한 형상, 즉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듯이, 논거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글썄요, 노아의 언약은 여전히 적용되고 사형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럴 만합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시다시피,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알겠어요, 여기에는 우발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해야 할 겁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DNA 증거에 따르면 무죄인 것으로 판명되는 사례에 대해 읽어보셨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망가졌습니다. 글썄요, 그들은 풀려났지만 큰 낭패였죠? 글썄요, 그 사람이 처형당했다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노아의 언약에 따라 사형이 적용되므로, 글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형이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때요? 저는 우리가 여기서 신에게 의심의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썄요, 사회에 적어도 신의 은혜로 분별하고 누가 진짜로 유죄인지 알아낼 수 있는 판사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법 오류는 없었을 것이고, 어차피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에 따라 같은 이유로 이 형벌을 정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 언약에는 사형에 대한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자격이 없거나 그렇게 하도록 지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성지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산을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성막, 거기에 들어가는 특정 지정된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신성모독, 당신은 죽임을 당한다. 어떤 형태로든 신을 따르는 것, 다른 신은 죽임을 당한다.

다른 신을 따르라고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후에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매나 영매술사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ov 가 있는 남자나 여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히브리어 ov 는 분명히 돌아오다를 의미하는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방식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유령에 대한 개념이죠.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 유령이 돌아다니죠. 사실, 저는 성경이 그것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있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바다를 건너는 것을 보았을 때 , 그들은 그것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지구를 떠도는 유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대중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레위기 20:27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ov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ov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저는 인간이 그 또는 그녀 안에 세 가지 종류의 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영.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면 성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예수님의 사역, 바울의 사역을 통해 사람이 그 안에 악령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그림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의 이 진술에서 암시된 성경적 그림은 영매가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다면 악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출처에서 계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추천하지 않았을 영매에게 간다면, 저는 영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그녀는 제 시를 읽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저 좋은 캐릭터 리더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매에게 가서, 예를 들어, 영매술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영매는 당신의 죽은 삼촌 조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 삼촌만이 알고 있는 것을 듣는 것이고,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와, 이건 진짜야. 그녀는 정말로 조 삼촌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글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조 삼촌이 악마를 하나나 둘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의 주변에 악마들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 삼촌인 척하고 실제로 이 영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들은 그들의 주인 사탄처럼 사기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실제적일 수 있어요. 이건 레위기 20장에서 완전히 설명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만 주실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계시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런 출처가 아니라 나에게서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기 위해 거기에 갑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일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어긴다면, 기본적으로 언약을 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의 어떤 부분도 원하지 않는다. 글썄, 그것들은 모두 신에 대한 죄들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독하는 것은 사형을 가져올 수 있다.

저주함. 아버지의 아내와 자는 것. 다른 성적 죄.

동물, 간통, 동성애. 동성애는 우리 문화에서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유전학적 측면에서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물론 신약에서 로마서 1장에서 이 문제를 재확인합니다. 그는 이것이 부자연스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납치.

그래서 우리 는 모세의 언약에 따라 사형을 받을 만한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을 요약하자면, 신에 대한 죄와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여기에는 살인이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태그를 달았습니다. 따라서 황소가 누군가를 뿔로 들이받고 습관적으로 뿔로 들이받는 경우 , 그리고 주인이 그것을 가두지 않았다면, 황소는 돌로 쳐야 하고, 주인도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우연히도, 우리는 그 정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 번 일어난다면, 글썄요, 그건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적인 일로 알려졌고, 그 사람이 그냥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정말 유죄입니다. 사실상 그는 인간을 죽이는 것을 도운 사람입니다.

글썄요,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이 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 법적 법안, 즉 옛 언약을 취소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것이 더 나은 언약으로 대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글썄요, 하느님에 대한 죄에 대한 사형은, 꽤 분명해 보이는데, 예수께서 폐지하셨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상대로 한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거스른 죄를 언급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성에 가장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령을 거부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들의 거부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오인하는 형태를 띠니다. 사회적 죄에 대한 사형은 구약 왕국의 형태를 본떠 그 자체를 형성할 국가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정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헌법 대신 이스라엘의 법을 채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이 구약성서에서 보는 법의 정신을 구현한다면, 모세의 법은 그의 국가를 위한 일종의 신의 헌법이므로,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레미야서에서 공통 은혜 아래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 진술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내려가서 도공을 보라고 하셨고, 도공은 일하고 있었고, 그는 진흙에 일어나는 일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특성화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다른 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글썄요, 내가 어느 때든지 어떤 나라나 왕국을 뿌리째 뽑고, 헐고, 파괴하라고 선언한다면, 그 나라에서 나는 경고하고, 그 악을 회개하라고 한다면, 나는 마음을 돌려 내가 계획했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때에 내가 어느 나라나 왕국을 세우고 심으라고 선언하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 해야 할 선을 재고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것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심판은 일반 은혜 기준에 근거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것이 어떤 나라나 왕국이든, 나라나 왕국이든,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국가의 죄가 충분히 심각하다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은혜 아래에서 국가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은 그것의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보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인내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소련이 어땠는지 보세요. 신이 없다는 세계 역사 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이죠. 글썄요, 더 이상 소련은 없습니다 .

이제 푸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는 어떻게든 그것을 재건하거나 달성하려고 합니다 . 하지만 저는 신이 그저 사물에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소련의 붕괴로 신의 왕국이 일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일들에 눈감지 않습니다. 그는 결정할 때 자신의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것은 구약성서에 있지만, 어떤 국가나 왕국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폐지하는 내용은 신약성서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국의 형태가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목표는 사람들을 주님을 위해 찾아가서 그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왕국의 형태는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국가에 행하시는 일에 대해 읽고 싶다면 구약에서 더 많은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왕국의 형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대해 많이 읽지 않습니다. 조금만 읽어보세요. 아시다시피, 로마서 13장에서,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황제를 존경합니다. 우연히도, 그 당시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는 꽤 나빴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구약을 더 많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바꿀 것이 없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라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걸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보는 것이 판단이라고 항상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9-11에, 글썄요, 그것은 판단이었다고 말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카트리나가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부르기 어렵죠.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해 조금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라들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걸 인식하세요

그리고 바울이 말했듯이 구약성경의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으므로, 적어도 그것들을 주의 깊게 읽고 이런 생각들을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모세 언약에 따른 사형의 정의는 어떨까요? 모세 언약은 신명기 24장에서 갱신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적합한 때에 사형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에제키엘도 이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인의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럼, 여기서 살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살인은 사형을 초래하는 한 가지 요인입니다. 살인이 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글썄요, 땅을 오염시킵니다.

피 흘림은 땅을 오염시킨다고 우리가 읽은 대로. 그래서 당신은 땅을 더럽히지 않는다. 물론 나중에 시편 100편에서 우리는 그들이 땅을 더럽혔다고 읽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이 카나안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아들과 딸의 피였습니다. 그들의 피로 인해 땅이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카인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자체가 어떻게든 오염되었습니다. 땅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작물을 맺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Imago Dei가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탐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땅을 오염시키는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우상 숭배가 주님의 관점에서 땅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적 죄가 땅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너무 커져서 이사야 24장에서 땅이 주민들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살인, 우상 숭배, 성적 죄가 땅을 오염시킨다면, 우리 땅은 얼마나 오염되었을까요? 탄소 배출이나 그런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종종 말했듯이, 우리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 원칙에 따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오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오염보다 더 실존적으로 위협적인 종류지만, 그것도 심각합니다. 글썄요, 홍수와 노아, 사실, 아담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스도론에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관점에서요. 하지만 유형론과 그리스도론도 홍수에 의해 매우 생생하게 제기되었는데, 신약이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입니다. 홍수 때와 같이,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했고, 아무것도 올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와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갔습니다.

인자의 임하심도 그러하리라. 그들은 그런 일이 이야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저 우리가 유형론과 그리스도론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홍수를 예표로 보고, 신약의 아들의 종말론적 최후의 심판에서의 재림을 예표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어입니다. 구약은 예표를 제공하고, 신약은 예표를 제공합니다. 즉,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고, 그것의 더 충만하고 다른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 당신은 그리스도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선지자로서, 그로부터 인류가 온

아담은 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반대 유형은 언약을 중재하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에게서 새로운 인류가 나오고, 등등.

학자들이 그리스도론의 관점에서 이 용어, 유형과 반유형을 사용하는 방식은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인물이 왕, 제사장, 선지자 또는 언약의 중재자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우 나쁜 왕인 아합조차도 기술적으로 그리스도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어를 설명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로서, 예표로서, 그리고 최후의 심판으로서, 베드로는 같은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런 다음 물로 그 세상이 파괴되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현재의 하늘과 땅은 불에 보존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관됩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종말론적 불타는 심판의 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히 그것이 흥미로운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단어로, 그들은 이 단어로 창조되었고, 같은 단어로, 그들은 심판을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스어 단어는 로고스이므로, 그것은 성육신 이전의 아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통해, 그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 의해 심판을 받기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아담에 대한 주님의 언약적 헌신의 말씀, 모든 것을 암묵적으로 회복하겠다는 헌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부수적인 사항일 뿐입니다.

홍수는 또한 신약에서 일종의 세례로 다루어지고, 베드로전서에서 이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고, 의로운 자는 불의한 자를 위해 죽으셨으며,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불순종한 사람들, 아니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 모두 여덟 명만이 물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이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홍수는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죄 많은 인간을 쓸어버렸습니다. 글썄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을 쓸어버렸고, 종말론적 심판은 그것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입니다. 세례는 상징적으로 죄에 대한 당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은 이것을 이어받아, 처음 몇 구절에서, 당신은 아래로 내려가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듯이 죽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일어납니다.

우연히, 이것은 세례적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것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고, 당신이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성령 안에서 자유와 능력을 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구절에서 죄가 당신의 주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완전한 침수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여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당신은 가라앉고, 상징적으로 죽고, 새로운 삶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영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그것은 신약에서 다루어지는 노아 언약의 유형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노아는 선지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여기서도 그는 선지자라고 불리지 않고, 의의 설교자라고 불리고, 선지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약을 중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직분과 관련이 있고, 성격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으므로, 아합조차도 그리스도의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 그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관련하여 보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총을 얻었고,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에 순응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예수만큼 의롭지는 않았지만, 의롭다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즉, 그는 선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순종적이며, 그런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너희가 의롭다는 것을 발견하였노라. 이것은 노아의 가족이 의롭다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이 모두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매우 앞서서 예견하는 방식인데, 그는 의로운 분이고, 그의 순종으로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의 가족은 그 세계적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해 우주적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언약을 내가 주요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일하십니다. 그의 말씀은 영이고, 그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루지 않겠지만, 창세기 8:1에서 우리는 물을 가져오는 바람에 대해 읽습니다. 그것은 영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영은 아마도 폭풍을 만드는 데 관여했을 것입니다.

홍수. 그는 선지자 노아를 통해 일합니다. 그는 그의 적들과 전쟁을 벌이고, 이 경우 인류를 물리칩니다.

그는 한 백성, 작은 백성, 노아와 그의 가족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특별한 은혜 현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이 충분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적했듯이, 노아는 선지자로 불리지 않았지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꽤 명확하게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 또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원리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다시 성찰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언약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는 우리가 말했듯이 전쟁 행위입니다. 그의 심판 행위는 그의 밀랍입니다. 그는 누군가와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민족, 이 경우 세계 인류 등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전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다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충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9장에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두 형제에게 말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저는 이야기에서 그가 아버지에 대해 말한 것과 더 비슷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 제가 본 것을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취했어. 그가 뭘 했는지 봐. 그리고 그게 다야.

그 뒤에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가 카나안에게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에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르몬교와 다른 사람들은 아프리카 흑인의 흑인성과 그들의 원시 상태와 그 밖의 모든 것이 저주의 징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족, 성경적으로 아프리카인이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여기서 저주가 실제로 함의 아들 카나안에게 있다는 것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주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남북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 될 것이고, 그들 중 살아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확실히 어느 정도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은 셈과 야벳이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그리스도론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 또는 아담과 그의 아내의 알몸을 덮으신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덮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물 가족으로 덮으셨다면 동물들이 그 대가로 죽어야 했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덮여지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은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한다고 선언합니다.

내 영혼은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는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겹옷을 입히시고, 등등. 그래서 상속을 포함할 수 있는 옷에 대한 이 관념은 직책을 회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좋은 일이며,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들을 행하십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를 위해 옷을 입힙니다. 저는 그가 창세기 3장에서 그들에게 옷을 입힐 때 희생, 피의 희생,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입힐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예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은 상속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Hugenberger 박사가 이 아이디어를 연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아시리아인들이 누군가에게 옷을 입히고, 누군가에게 가운과 반지를 주어 사무실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어느 정도 그들에게 옷을 입히실 때, 내가 너희를 땅의 왕과 여왕으로 복위시키노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언젠가 죽을 것이지만, 통치할 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탕자의 비유. 기억하세요,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그에게 옷과 반지를 줍니다.

그는 큰 아들에게 상속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아들에게 상속 재산을 낭비했지만, 나는 당신을 가족으로 복귀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가족에서 당신의 지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제 생각에, 신의 옷, 남자와 여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매우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축복입니다. 우리는 함의 아들에 대한 저주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썸의 하나님, 곧 썸족의 하나님,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의 영토를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벳은 저 밖에 있는 이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야벳이 썸의 천막에 살고, 카나안이 그의 노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게르하르두스 보스는 오래전에 그의 성경 신학에서 이 축복의 요소들을 지적했습니다. 글쎄요, 썸족인 썸족은 결국 이스라엘에서 성취됩니다.

야벳, 이교도들은 결국 우리 안에서 성취됩니다. 우리는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고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그들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셈족의 천막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신, 이스라엘의 신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가나안 사람들이고, 그들의 노예 상태와 예속은 구약의 왕국 형태로 성취됩니다.

좋아요,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언약과 아담 언약의 관계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조 언약이나 아담 언약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아 언약에서 갱신됩니다.

많은 동일한 용어가 반복되었고, 변화된 상황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에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진 방식입니다. 신명기가 시나이 언약과 관련하여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들은 함께 하나의 법적 패키지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것들은 공통 은혜 맥락 또는 특별 은혜 프로그램이 전개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담과 노아의 언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태양을 비추시고 그의 비를 선하고, 악하고, 의롭고, 불의한 자에게 내리실 행성, 지속적인 세상에 대한 공급,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그의 왕국의 진전은 지금의 프로그램을 새 언약으로 이어가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가장 분명하게 예고되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언약입니다.

이것은 성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프리 니하우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노아 언약입니다.